

「칸디」思想研究, 自我로 超越하여 愛他主義에(제8회)

朴魯哲

(二)印度教 中心 思想 概觀

(3)崇牛思想

印度教의 牧牛 崇拜熱은 四種姓 階級 制度와 함께 가장 尊重이 보므로 누구나 印度教의 敎理를 研究하자면 먼저 印度唯一의 牧牛信仰에 對하여 着眼하지 안 홀수 업다고 본다.

印度에서 『牛』를 戰爭의 意味로 보는바 印度서 戰爭이란 말을 『牛를 바란다』의 義로 보게 되었다. 『칸디』는 印度의 牛에 對하여 다음과 가티 말하였다.

『五千年前에 使用하든 牛는 今日에 잇서 서도 一般農夫의 使用하는 牛가 되어 있다』라고. 이는 英國의 機械文明을 諷諭하여 印度內地에 잇서 서의 英人의 機械化한 都會의 색다른 洋風을 嫌忌한데서 意味한 말이다.

古印度의 傳說에 依하면 『뿌라-만』(Brohman)敎의 信仰으로 보아 呼吸은 牧牛이며 人類의 精神은 幼兒이며 『牧牛』는 言語의 象徴이라 하였다. 이로 보면 古來로 印度人이 牧牛를 극히 尊重視한것을 斟酌할수잇스니, 印度에서는 上古로부터 그 言語(古梵語(Sanskrit))를 最高의 國寶로 여겼든바 牧牛를 『산스크립』와 同地位에 둠을 보아도 그 얼마나 尊貴한것임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印度教의 中心思想은 牧牛의 保護에 잇섯고 印度民族의 伴侶者 또는 印度의 母로서 農牧을 象徴하는 神『푸시안』(Pushan)이나 진배 업시 推尊하였다. 이럼으로 印度敎人들은 牧牛를 잘 保護함으로서 祝福을 받고 牧牛를 尊崇함으로 印度教의 永存无亡을 豫言하였다.

印度敎에서 肉食을 一大罪惡으로 認定함도 이러한 所由라 하겠다. 이에 對하여 『칸디』는 말하였다.

『나는 通俗的 意味보다도 더 큰 意味에 잇서서 牧牛의 保護를 밋는다. 印度敎의 中心思想은 牧牛保護에 있다. 그 牧牛保護는 人類進化의 가장 不可考

한 것중에 하나다. 牧牛保護는 그 種族以外的 人類를 要하는 것이다. 卽 牧牛는 人類以下の 全世界를 意味한것이다. 사람은 牛에依하여 사람이라 한다. 牧牛는 印度에 있어서 가장 適宜한 人類의 伴侶者이다. 이는 그 牛乳를 사람에게 供給할뿐더러 印度의 農牧을 豊盛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한 慈愛의 詩神이다. 사람은 그 柔順한 動物性에서 慈悲의 信念을 차를 수 있다. 그는 幾億萬이나 되는 印度民族의 母다. 上古의 豫言者는 그 어처한 者나 牧牛에게서 비롯되었다는 傳說(神話)도 있다. 이럼으로 牧牛의 保護는 印度敎의 唯一한 産物이다. 牧牛를 保護하는 印度敎信徒의 存在하는 그 어간은 印度敎도 이에 實하 滅亡치 안는다』라고. 이로 보면 印度敎와 印度民族은 牧牛에 對한 信念이 吠陀文學, 『산스크리트』의 精神, 『싸가얌·기타』의 哲學, 『라마야나』의 詩歌와 同一한 地位에 있어서의 貴重한 伴侶者로 생각 되었다. 아니 實際生活에 있어서는 그보다도 더 慈悲의 愛를 느끼게 되고 그 努力의 恩功을 맛보게 된다. 이에 對하여 『찬디』는 이르대 『牧牛保護는 印度民族의 先祖로부터 한줄기 뉘어온 信條로써 내려 왔다. 그러자 牛肉을 먹자고 主張하는 한편에서는 破門이 될 뿐더러 國內의 爭議는 실로 極烈하는중 그들의 罪果는 그의 子孫에게 까지 轉輾하여 내려왔다. 이러한 影響으로 지금껏 印度民族은 牧牛에 對한 信念의 慣習이 구더진 것이다』하였다. 이에 依하여 錫蘭의 傳說을 들면 그 惝에서는 自古로 牛를 尊重히 여겨 그 肉을 食지 안코 牛乳만 마시는데 만일 國人중에 牛를 屠殺하는者있으면 그 罪의 값으로 屠害者를 대신 死刑에 處하는 風濕이 있다 한다. 그 傳記에 依하면 『錫蘭山, 在大海中, 王尙釋, 重象牛, 飲牛乳, 不食其肉, 殺牛者, 罪死, 國富地廣, 人口亞於瓜哇, 民上裸下□』이란 말과 가티 印度에서는 古時로부터 牧牛에 對한 信仰이 敦篤하매 牧牛를 保護하기 爲하여 人民을 殺生하는 수도 있었다.